

# 1.소나무



겉씨식물들로 이루어진 소나무과(一科 Pinaceae)에 속하는 상록교목

키는 30m 정도, **잎은 2장씩 잎집[葉鞘]에 모여 달리며 꽃은 5월에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 따로따로 피는데, 가지 끝에 2~3개의 자주색 암꽃이 달리며 그 아래에 많은 수꽃이 달린다.** 구과(毬果)(비늘 조각이 여러 겹으로 포개어져 있는 열매)는 다음해 9월에 길이 4~6cm로 완전히 익고 씨에는 날개가 있다. 잎 말린 것을 송엽(松葉), 꽃가루 말린 것을 송화(松花), 송진을 끓여 모아 말린 것을 송지(松脂)라고 하는데, 한방에서 송엽은 **각기병(비타민B의 부족으로 다리가 붓는 병)과 소화불량의 치료제나 강장제로**, 송화는 **이질의 치료제로**, 송지는 **지혈제로** 쓰인다. **송진**은 반창고나 고약의 원료로 이용하며 목재는 **건축재나 기구재**로 쓰인다. 소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로 믿어 마을 어귀에 세우는 장승의 재료로도 쓰였으며, 잎과 함께 찜질감으로도 쓰인다. 소나무는 양지식물로, 다른 나무들이 자라기 힘든 메마른 곳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또한 사시사철 푸르른 잎을 지니며, 강인한 인상을 주는 줄기 때문에 대나무와 함께 **송죽지절(松竹之節 : 변하지 않는 절개)**을 상징하거나 **송교지수(松喬之壽 : 인품이 뛰어나고 오래 사는 사람)**를 가리키기도 한다.

솔잎 1.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맛은 시다. 2. 풍습을 없애고 몸안의 벌레를 죽인다

3. 가려움을 멎게 하고 머리털을 나게 한다. 4. 내장을 고르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며 오래 살게 한다.

그러나 솔잎을 그대로 생즙을 내어 먹거나 가루 내어 먹거나 알약을 지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솔잎에 들어 있는 송진에 독이 있기 때문이다.**

## 2. 잣나무



겉씨식물인 소나무과(一科 Pinaceae)에 속하는 상록 교목 키는 30m에 이르며 줄기의 지름은 1m에 달한다. 수피(樹皮)는 암갈색이며 갈라진다. 잎은 5장씩 모여 달리는데, 뒷면에 하얀 기공(잎의 뒷면에 있는 공기구멍)선이 있어 연한 초록색을 띠며, 가장자리에는 잔 톱니가 있다. 꽃은 5월 무렵 새로 난 가지에서 5, 6개씩의 수꽃송이는 가지 아래쪽에, 2~5개씩의 암꽃송이는 가지 끝에 같이 핀다. 씨는 꽃이 핀 이듬해 10월경에 익는데, 구과(毬果)(비늘 조각이 여러 겹으로 포개어져 있는 열매)를 이루는 실편(침엽수의 구과를 구성하는 부분)의 끝은 뒤로 젖혀진다. 실편들 사이에 난형(卵形) 또는 찌그러진 3각형의 씨가 들어 있다.

**잎이 5장씩 달려 오엽송(五葉松)**이라고도 부른다. 신라가 잣을 중국에 수출했기 때문에 신라송(新羅松)이라고도 한다. 목재는 질이 연하고 결이 곧게 뻗어 가공하기 쉽다. **가구재 및 도구나 선박을 만드는 데 쓴다.** 씨를 잣 또는 송자(松子)라고 한다. 잣을 한방에서는 해송자(海松子)라 부르며, 내경편이나 탕액편에 잣을 먹으면 몸이 산뜻해지고 장수불로 하며 조금 먹어도 영양이 좋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오장에 영양이 되며, 허하고 야위어 원기가 쇠약한 것을 보한다 했다. 잣은 칼로리가 높을 뿐 아니라 비타민 B군이 풍부하다. 하지만 인이 많고 칼슘이 적은 산성식품이므로 칼슘을 보충하면서 먹는 것이 좋다. 잣은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레인산 등의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양.강장은 물론 스테미너에도 도움이 된다.

뼈마디가 쭈시는 신경통, 풍증으로 인한 마비, 어지럼증, 빈혈 예방, 원기 회복, 신진 대사를 활발, 위장이나 폐에 도움, 산장, 심장, 신장에 작용, 진액을 생성 하는데 도움, 기침, 가래가 심할 때, 말랐을 때, 기력이 없을 때, 귀 울림, 환자의 병 후 회복, 잣술은 혈압을 내리는 데 도움, **잣나무 송진은 피부 부스럼이나 피부 질환이 생길때 두 세번을 녹여 바르면 말끔하게 치유된다**

### 3. 전나무



겉씨식물인 소나무과(一科 Pinaceae)에 속하는 상록 침엽교목. 키 40m, 지름 1.5m에 이른다. 수피(樹皮)는 잿빛이 도는 흑갈색이며, 결가지는 많지 않다. 선형의 잎은 길이가 4cm, 너비가 0.2cm 정도이고, 끝은 갈라지지 않고 뾰족하며 뒷면에는 하얀 기공(잎의 뒷면에 있는 공기구멍)선(氣孔線)이 있다. 꽃은 4월에 길이가 1.5cm인 원통형의 수꽃송이와 길이가 3.5cm인 긴 타원형의 암꽃송이가 따로따로 한 그루에 핀다. **2년마다 맺히는 3각형 모양의 씨는 10월에 익는데 구과(毬果)**(비늘 조각이 여러 겹으로 포개어져 있는 열매)의 실편(침엽수의 구과를 구성하는 부분)은 연한 갈색 또는 녹색이며 씨를 둘러싸는 포(苞)는 솔방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건축재·가구재·펄프재·상자재**로 쓴다. 전나무 잎은 여성들의 보음약으로 이름이 나 있다. 여성의 자궁출혈, 냉대하, 이질, 설사, 몸이 습하고 냉하여 생긴 일체의 병을 치료하는데 전나무 잎을 쓴다. **대부분의 나무는 햇볕을 향해 가지를 뻗지만 전나무는 그 가지를 그늘을 향해 뻗으므로 "음수"라고 부르는데, 음수인 까닭에 음을 보하는 성질이 있어 여성의 온갖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오래 복용하면 무병장수하게 된다고 한다.** 전나무고를 만들어 두고 수시로 복용하면 여성들의 제 질환에 크게 효과가 있다. 전나무 고를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겨울에도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으며, 폐와 다리가 튼튼해진다. 류머티스 관절염, 요통, 요도염, 폐결핵, 위염, 위궤양 등의 갖가지 염증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전나무 진은 나무에 상처를 내어 흘러내리는 것을 긁어모아서 쓰는데 부스럼, 상처, 종기, 종창 등 피부에 생기는 온갖 부스럼과 상처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크다. 전나무의 어린 가지와 잎은 욕탕 재료로 더러 쓴다.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감기 치료에 전나무 잎과 어린줄기를 끓인 물로 목욕을 하면 효과가 매우 좋다.

## 4.주목



주목과(朱木科 Taxaceae)에 속하는 관상용 상록관목 또는 교목.

키가 약 16m까지 자라 서양주목(*T. baccata*)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보다는 내한성이 강하며 빨리 자란다. 각 잎의 아래쪽에는 2줄의 노란색 띠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목은 많은 원예품종들이 만들어져 있다. 줄기 옆에 달린 가지를 꺾꽂이하면 그 식물체는 옆으로 기면서 자라는 관목으로 되나, 줄기 윗부분에 달린 가지를 꺾꽂이하면 식물체는 곧추서고 대칭을 이룬 원뿔 모양으로 자란다. 주목은 바늘잎이 달리며 4월에 꽃이 피어 8~9월에 열매가 익는데, 열매는 컵 모양의 붉은색 종의(種衣)에 둘러싸인다. **잎을 말린 주목엽(朱木葉)은 신장병과 위장병 치료나 구충제로 쓰이지만 줄기와 잎에 있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정지시키는 탁신(taxine)이라는 알칼로이드 물질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물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열매는 날 것으로 먹거나 진해제로 사용한다. 최근에는 탁신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변재는 좁은 흰색이고 심재는 홍갈색이어서 구분이 쉽게 되며 결이 고르고 광택이 좋아 **고급 장식재, 용구재, 조각재 및 세공재로 널리 쓰인다. 심재의 색이 홍갈색을 띠어 '붉은나무'라는 뜻의 주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피(樹皮)를 삶은 물에 백반을 첨가하여 염색하면 붉은빛으로 염색된다. 특히 주목나무의 수지에서 **taxol이라는 성분을 추출하여 항암제로 이용**하는데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보고가 있다. **민간요법으로는 주목의 나무줄기 또는 껍질을 기침약, 신경통 치료약으로 쓴다고 한다. 또한 심장이 약하신 분은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5. 구상나무



소나무과(一科 Pinaceae)에 속하는 상록교목.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제주도, 지리산, 덕유산 등지에서만 자란다. 키는 18m에 달하며 오래된 줄기의 껍질은 거칠다. 어린가지에는 털이 약간 있으며 황록색을 띠지만 자라면서 털이 없어지고 갈색으로 변한다. 잎은 길이 0.9~1.4cm, 너비 2.1~2.4mm 정도로 작으며 **잎 끝이 얇게 갈라졌다**. 구과(毬果)(비늘 조각이 여러 겹으로 포개어져 있는 열매)는 원통처럼 생겼는데 길이 4~6cm, 지름 2~3cm 정도이며, 밑으로 처지지 않고 위로 곧추서고 녹색 또는 자갈색을 띤다. 씨를 감싸는 조그만 잎처럼 생긴 포편(苞片)(꽃대의 밑이나 꽃자루의 밑을 받치고 있는 녹색 비늘 모양의 잎 조각)의 끝에는 뾰족한 돌기가 나와 뒤로 젖혀져 있다. 때때로 구과의 색깔이 파란색, 흑자색 또는 약간 붉은색이 되기도 하여 이들을 각각 푸른구상(*A. koreana* for. *chlorocarpa*), 검은구상(*A. koreana* for. *nigrocarpa*), 붉은구상(*A. koreana* for. *rubrocarpa*)이라고 부른다. **젓나무**와 비슷하나 잎이 뾰뾰하게 달리며 잎 끝이 오목하게 갈라진 점과 구과에 달린 포편의 끝이 뒤로 젖혀지는 점이 다르다. 해발 1,500m에서부터 산꼭대기 근처까지 군락을 이루며 자란다. 그러나 **잎 속에 기름이 많이 들어 있어 안개와 빗물에 젖은 잎과 가지라도 쉽게 불에 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상나무를 불쏘시개로 이용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일이 줄어들었지만 폭설로 인하여 큰 구상나무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어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잎 뒤에 기공(氣孔)이 나란히 나 있는 기공선이 매우 희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나무 전체가 은녹색으로 보이며 매우 아름다워 가끔 정원수로 쓰인다. 물이 잘 빠지며 점토질이 섞인 땅에서 잘 자란다. **건축재·가구재로 사용하고 상자 또는 널판을 만드는 재료**로 쓰기도 한다.

**구상나무가 아토피와 여드름 등 염증성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6.가문비나무



소나무과(一科 Pinaceae)의 가문비나무속(一屬 Picea)에 속하는 상록교목  
키가 40~50m까지 자라며 수피(樹皮)가 비늘처럼 벗겨진다. 잎은 편평하고 다소 안쪽으로 굽었으며  
길이는 1~2cm이고 끝이 약간 뾰족하다. 하얀색 또는 황갈색을 띠는 목재는 변재(邊材)와 심재(心材)  
의 구분이 없으며, 뒤틀리기 쉽다. **펄프를 만드는 중요한 자원**의 하나이다. 약간 물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 능선보다는 계곡에 더 많지만 남쪽 지방에서는 능선 근처에서도 볼 수 있다. 나무줄기  
는 불에 구우면 잘 구부러지고 질기고 탄력이 있어 **소의 코뚜레 재료, 크리스마스 장식용  
트리**로 쓰였다

잎 달임약을 산통, 물고임에 쓰며 가지는 류마티스와 감기때 욕탕에 담가 목욕하는데 쓴다. 또 폐결핵  
에는 잎을 태워 연기를 들이 쐬다

## 7.노간주나무



측백나무과(一科 Cupressaceae)에 속하는 상록교목.

주로 석회암지대에서 자란다. 키는 8m 정도로 보통 200년까지 산다. 원통형의 빗자루처럼 생겼으며, 수피는 세로로 갈라지고 흑갈색을 띤다. 잎은 3개씩 모여 달리며 끝이 뾰족하고 진한 녹색이나 겨울에는 흔히 적갈색으로 변한다. 꽃은 5월에 잎겨드랑이에서 피는데 암꽃은 1송이씩, 수꽃은 1~3송이씩 달리며 열매는 10월에 진한 갈색으로 둥그랗게 익고 맛이 좀 쓰다. 두송실(杜松實)은 가을에 열매를 따서 햇볕에 말린 것으로 한방에서는 **통풍·이뇨·신경통·류머티즘의 치료에 사용**한다.

**관절염, 통풍에 좋은 노간주나무(노송나무)**

0.잎, 열매를 약으로 씹 0.콩팥에 독을 일으키므로 다량 복용하면 안됨(1-2g정도는 괜찮음)

0.열매가 9월에 붉게 익음 0.서양에서는 양주의 원료로 씹.

가. 가을에 열매를 따서 말린후 기름을 짜서 사용(두송유)-5되를 짜 면 2-3홉정도 나옴

나. **통풍치료, 루마티스관절염, 풍속성관절염, 근육통, 중풍, 신경통, 요통: 노간주열매기름이 좋음-통증 부위에 두송유 바르고 창호지나 기름종이를 고정시켜 붙여 놓으면 된다.**

다. 익은 열매를 35도C이상 증류수에 담아서 숙성. (술의 1/3정도열 매) - 어둡고 환풍이 잘된곳에 보관, 6개월후 씨앗은 버리고 1-2 잔씩 취할 정도로 복용.-마비된 곳. 피로했을 때 좋음(나무 몸통을 썰어서 진하게 달인물로 목욕 또는 마사지도 좋음

라. 두송주: 관절염, 요통, 신경통, 비염, 편도선염치료에 좋음

## 8. 엄나무



두릅나무과(一科 Arali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키는 20m에 이른다. 가지에는 가시가 많으며, 줄기에도 가시의 흔적이 남아 있다. 잎은 어긋나는데, 단풍나무의 잎처럼 5~9갈래로 갈라지고 잎가장자리에는 조그만 톱니들이 있다. 잎자루는 보통 길이가 10cm 이상이지만 때때로 50cm 이상일 때도 있다. 황록색의 꽃은 7~8월경 새 가지 끝에서 산형(傘形)(꽃대의 끝에서 많은 꽃이 방사형으로 나와서 끝마디에 꽃이 하나씩 붙는다.)꽃차례로 무리져 핀다. 열매는 10월 무렵 검은색으로 둥그렇게 익는다. 어린잎을 나물로 먹기도 한다. 나무는 다루기 쉽고 큰 널판을 얻을 수 있어 합판·가구·악기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고 있다.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가지에 커다란 가시들이 있어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귀신나무라고 하여 집안에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방 문 위쪽에 가지를 걸어두거나 무당이 굿을 할 때 귀신을 물리치는 도구로 가지를 쓰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아쉬어 엄나무 방석이라'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는 가시가 많은 엄나무로 만든 방석에 앉는 고통을 빗대어 일컫는 말이다. 엄나무의 약효는 다양하다. 먼저 관절염, 종기, 암, 피부병 등 염증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신경통에도 잘 들으며, 만성간염 같은 간장질환에도 효과가 크고, 늑막염, 풍습으로 인한 부종 등에도 좋은 효과가 있으며 진통작용도 상당하다. 또 늘 복용하면 중풍을 예방한다. 당뇨병에도 일정한 치료작용이 있고, 강장작용도 있으며, 신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만성간염이나 간경화 초기에는 엄나무 속 껍질을 잘게 썰어 말린 것 1.5킬로그램에 물 5되를 붓고 물이 3분지 1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한번에 20밀리리터씩 하루 세 번 밥먹고 나서 복용한다. 대개 4~5개월 정도 복용하면 80퍼센트쯤은 치유된다. 신경통·관절염·근육통·근육마비·신허요통 등에는 엄나무 뿌리를 생즙으로 내어 마시면 좋다. 기침이나 가래 끓는 병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 엄나무를 닭과 함께 삶아서 먹기도 하는데 관절염이나 요통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 9. 헛개나무(지구자나무)



갈매나무과(一科 Rhamnaceae)에 속하는 낙엽 활엽교목

관목으로 자라기도 한다. 동아시아가 원산지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된다. 한국에서는 중부 이남의 해발 50~800m에서 자라며 일본·중국 등지에도 분포한다. 키는 7~15m, 지름은 30~40cm 정도로 자라며 수피(樹皮)는 회색이 도는 갈색을 띤다. 넓은 난형(卵形)의 잎은 어긋나는데 기부는 둥글고 길이는 8~15cm, 너비는 6~12cm이다. 앞에는 3개의 큰 맥이 발달해 있고, 잎가장자리에는 둔한 톱니가 있다. 녹색의 꽃은 크기가 7mm 정도로 6~7월에 가지 끝이나 잎겨드랑이에서 취산(聚繖)(줄기 끝에 달린 꽃 밑에 세 개 이상의 화경이 나오며 그 끝에 꽃이 달림)꽃차례를 이루어 무리져 피며, 꽃잎과 꽃받침이 각각 5장이고 수술과 암술이 있는 양성화이다. 열매줄기는 불규칙하게 가지를 치며 울퉁불퉁한데 마치 닭의 발가락이나 산호처럼 생겼다. 달콤한 맛이 나며 먹을 수 있다. 목재는 건축재·약기재·조각재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열매줄기는 단맛이 있어 과일주를 담그기도 한다. 열매줄기와 씨는 주독(酒毒)과 진토(鎭吐)에 약용으로 쓰인다. 헛개나무는 술독을 푸는

데 세계에서 으뜸 식물이다. 가지를 잘게 썰어 가지 50G당 물 2리터를 넣어 끓이고, 80도 정도의 물에 뚜껑을 열고 8시간정도 졸여준다. 뚜껑을 조금 열어두어야 몸에 안좋은 유해성분이 날아간다. 이렇게 두세번 반복해서 달인후 냉장보관하여 먹는다. 그리고 열매(지구자)달이는법. 가지와 다른 점은 열매속에 씨앗을 제거해주는 것 뿐이고 씨앗 제거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달여 냉장보관하면 된다. 그리고 달여놓은 물은 1일 3~4회 복용이 적당하고, 식전이나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하루 600CC넘지 않게 복용하는 것이 좋고, 간질환환자들은 1000CC씩 권유한다. 그리고 장아찌는 헛개나무잎으로 만드는 건데, 이건 일반 장아찌 만드는 법으로 헛개나무잎을 깨끗이 씻어서 장아찌 만들면 된다.

# 10.꾸지뽕나무



뽕나무과(科 Mor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관목처럼 키가 작다. **일반 뽕나무와는 달리 긴 가시가 있는 게 특징**이다. 가지에 가시가 많으며 어린 가지에는 털이 난다. **잎은 어긋나고 때때로 3갈래로 갈라지기도 한다.** 꽃은 **판그루에서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잎겨드랑이에 달리는데, **5~6월에 수꽃은 노란색으로 피며 암꽃은 지름 1cm 정도의 공 모양으로 핀다.** 여러 개의 열매가 뭉쳐서 커다란 하나의 열매처럼 맺히고 9월에 붉은색으로 익는다. 과육이 달고 맛이 있어 가을에 날것으로 먹는다. 활을 만드는 데 썼다고 해서 활뽕나무라고도 부른다. **뿌리로 술을 빚어 마시면 껏속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세를 고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위암, 식도암, 직장암, 자궁암, 간암, 폐암등** :줄기와 잎 60~120g에 물1되(1.8ℓ)를 붓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약한 불로 달여서 수시로 차 마시듯 마신다

**만성간염** : 줄기와 잎 30~60g, 조릿대 10~15g, 오리나무껍질 30~50g에 물 1되를 붓고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때까지 달여서 수시로 물 대신 마신다.

**자궁염, 냉증, 방광염, 생리가 잘 안나올 때** :꾸지뽕나무 30~60g에 물 1되를 붓고 달여서 수시로 복용하거나 꾸지뽕 나무기름을 내어 한번에 2~3숟갈씩 하루 2~3번 마신다.

**신경통, 관절염, 요통** : 꾸지뽕나무줄기나 잎을 달인 물로 아픈 부위를 씻거나 짓찧어서 찜질을 하고 이와함께 꾸지뽕나무 30~50g을 물로 달여서 하루 3~4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종기, 종창, 피부염, 습진, 타박상** : 꾸지뽕나무잎과 껍질을 날 것으로 짓찧어 붙이거나 달인 물로 씻는다.

**만성요통이나 무릎의 통증** :꾸지뽕나무 줄기와 잎 50~70g에 물 1되를 붓고 푹 끓여서 하루 3번에 나눠 복용한다. 이와함께 꾸지뽕나무 달인 물로 목욕한다

**양기부족, 정력이 약한데, 유정** :가을철에 잘익은 꾸지뽕나무 열매를 따서 35도 이상의 소주에 한달쯤 담가 두었다가 잠자기전에 한잔씩 마신다. 또는 꾸지뽕나무 열매를 그늘에서 말려 가루내어 한번에 5~10g씩 하루3번 먹는다. 꾸지뽕 나무열매는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정액을 늘리는 작용이 매우 세다.

# 11. 박쥐나무



박쥐나무과(一科 Alangiaceae)에 속하는 낙엽관목

잎두께가 얇고 잎맥이 뚜렷하며 마치 박쥐가 날개를 편 모양과 닮아 박쥐나무라 한다.

키는 3m가량이다. 잎은 어긋나며 잎가장자리가 3~5갈래로 얇게 갈라지고 털이 나 있다. 꽃은 5~7월에 잎겨드랑이에 취산(聚繖)(줄기 끝에 달린 꽃 밑에 세 개 이상의 화경이 나오며 그 끝에 꽃이 달림)꽃차례를 이루어 핀다. 꽃은 노란빛이 조금 도는 흰색이며 8장의 꽃잎은 길이가 2.5~3cm 정도인 긴 끈 모양이고 뒤로 말려 우산을 펴놓은 것처럼 된다. 거꾸로 매달린 하얀꽃이 예쁘기만하다. 수술은 12개, 암술은 1개인데 수술과 암술의 길이는 거의 같다. 열매는 핵과(核果)로 9월에 짙은 푸른색으로 익는다. 산지의 숲속에서 자라며 봄에 어린잎을 따서 나물로 먹는다. 뿌리는 팔각풍근(八角楓根)이라 해 한방에서는 진통제나 마취제로 쓴다. 이와 비슷한 단풍박쥐나무(*A. platanifolium*)가 거제도에서 자라는데 잎은 깊게 갈라지며 잎가장자리에 잔털들이 나 있다. 박쥐나무 어린 잎을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었으며 줄기의 껍질은 새끼줄 대용으로 사용했다. 최근에는 큰 나무 그늘에서 자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그늘진 곳에 심는 관상수로 이용. 잎의 모양이 크고 특이해서 이채롭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준다.

## 12. 정향나무



물푸레나무과(一科 Oleaceae)에 속하는 낙엽관목 꽃의 관상가치 및 향기가 높으며, **꽃의 모양이 정(丁)자형**으로 생기고 향기가 높다하여 "정향나무"라고 한다. 봄철에 수수꽃다리 등과 함께 조그만 연보라색 꽃들이 뭉쳐서 피고, 만개하면 뭉게구름처럼 피어 올라 은은한 향기를 낸다. 섬개회나무와 비슷하나 소지와 회서에 보통 털이 있고 잎이 난형, 표면 맥이 들어간 것이 다르다. **한국 특산 식물**. 키는 약 1.5m이며 잎은 넓은 난형으로 마주나는데 끝은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표면에 털이 있다. 꽃은 5월에 원추(圓錐)꽃차례로 **묵은 가지에 핀다**. 꽃잎은 자주색으로 통 모양이고 길이는 7~8mm이다. 삭과(蒴果)(익으면 껍질이 벌어지는 열매)는 끝이 둔하며 9월에 익는다.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 정원수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향료를 추출한다**. **1947년 미국인 식물 채집가 미더가 북한산에서 채집해 간 '털개회나무' 씨앗이 품종 개량돼 라일락으로 탄생**. 품종명은 '미스킴 라일락'. 자신을 도와준 한국인 타이피스트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장악하는 '미스킴 라일락'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도 수입. 그런데, 미스킴 라일락의 어미인 우리 고유 털개회나무는 오히려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잊혀지고 종자마저 퇴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 [수수꽃다리] 영어로는 라일락, 프랑스어로는 리라라고 하는데 노래가사에 나오는 '리라꽃'이 바로 이 것입니다. 밑에서 맹아(萌芽)와 가지가 돌아서 포기로 되며 5 m 내외로 자란다. 잎은 마주나고 난형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가을에도 빛깔이 변하지 않는다. 꽃은 4~5월에 피고 자줏빛이며 커다란 원추꽃차례에 달리고 향기가 있다. 꽃은 자줏빛이지만 한국에서 심고 있는 것은 흰빛이 대부분이며 흰서양수수꽃다리(var. alba)라고 합니다. 꽃말은 청춘, 젊은날의 회상, 친구의 사랑, 우애 등입니다.\* 정향과 수수꽃다리 비교 [꽃] 0.수수꽃다리의 4개로 갈라진 꽃잎은 그 끝이 둥근 편이다. 0. 수술은 꽃통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0.꽃은 작은 꽃줄기를 형성한다.[잎] 0. 수수꽃다리의 잎은 넓은 난형으로 밑은 아심형이다. 0. 잎자루가 정향나무에 비하여 길다. (20 ~25mm)



# 13.복자기



복자기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이다. **잎은 마주나고,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 하나에 잎 세 장이 나는 삼출엽**이다. 작은 잎은 넓은 피침형이고 가장자리에 2~4개의 큰 톱니가 있다. 가을에 드는 붉은색 단풍이 아름답다. 대부분 암수딴그루로 꽃은 잎과 함께 피며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에 자잘한 풀색 꽃이 땅을 향해 핀다. 나무껍질은 회백색이거나 회갈색인데 조각처럼 갈라지며 떨어진다. 열매는 단풍나무속답게 **시과**(열매의 껍질이 얇은 막 모양으로 돌출하여 날개를 이루며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 흩어지는 열매)이며, 겉에 거칠고 뾰뾰하게 털이 나 있다. 양 날개가 거의 나란히 벌어진다. 비슷한 나무로 열매에 털이 없고 삼출엽의 작은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예리한 **복장나무**(*Acer mandshuricum* Maximowicz)이다 가을하면 단풍이 가장 떠오르며, 특히 복자기 단풍은 아름다운 가을 단풍중에서도 으뜸이다. **밝은 진홍색 잎사귀들은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아 그 아름다움이 귀신의 눈병마저 고칠 정도라고 해서 귀신의 안약나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른 봄에 피는 노란 꽃이 온 나무를 뒤덮어 사람들에게 황홀감을 주고, 여름의 진녹색 단정한 잎과 가을의 아름다운 진홍색 단풍잎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자기 나무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아름다운 단풍때문에 조경수로 널리 인기가 있는 나무이다. 복자기 나무는 수피에서 타닌을 채취하여 염색에 이용하여 왔기에 색수(色樹)라고 부를 정도이다. 복자기나무가 다른 단풍나무와의 차이점은 붉은 빛을 띤 잎자루에 소엽이 3출엽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소엽 끝부분에 큰 톱니가 있는 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액을 받아먹는 나무들이 고로쇠나무인데, 같은 단풍나무에 속한 복자기나무의 수액도 달기에 야생동물들이 수액을 먹는것이라 생각이 든다. 복자기의 **목재는 아주 치밀하고 무거우며, 무늬도 아름다워서 고급가구나 무늬합판**을 만드는데 귀하게 쓰인다. 복자기 나무는 내한성으로 추위에는 강하지만 공해에 약한 편이어서 도심에서는 잘 자라기가 어렵다.

# 14. 누리장나무



마편초과(馬鞭草科 Verbenaceae)에 속하는 낙엽관목 **잎에서 누린내가 나서 누리장나무**라한다

**잎은 마주나며 잎 뒤에 있는 희미한 선점(腺點)들 때문에 고약한 냄새가 난다.** 잎자루에는 털이 잔뜩 나 있다. 꽃은 통꽃으로 8~9월에 가지 끝에 취산(聚繖)(줄기 끝에 달린 꽃 밑에 세 개 이상의 화경이 나오며 그 끝에 꽃이 달림)꽃차례를 이루며 무리지어 피는데, 연한 분홍색의 꽃부리가 5갈래로 갈라졌다. 수술과 암술은 갈라진 꽃부리 밖으로 나와 있다. 열매는 핵과(核果)(단단한 핵으로 싸여 있는 열매)로 10월에 진한 남빛으로 익고 붉은색으로 변한 꽃받침 위에 달린다. 7월에 어린잎을 따서 나물로 먹는다. 추위에 잘 견디며 빨리 자라 정원이나 공원에 흔히 심지만 배기가스에는 약하다.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으나 길게 멀리 뻗는다. 오동잎을 닮은 잎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취오동(臭梧桐)이라고도 부른다. 예로부터 누리장나무는 **여름에 개화하는 붉은 색의 꽃이 아름답고 가을에 비취색으로 익는 열매색이 아름다워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개울가에서 자생하고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 교목 하층의 저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내한성과 내공해성이 강하여 도심지내 조경수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누리장나무의 **비취색 열매를 염료로 이용하여 천에 갈색으로 염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누리장나무를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한 조경적 특성 및 번식방법이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고시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열매는 둥글며 지름 6~8mm로서 10월에 짙은 푸른색(碧色)으로 익고 적색의 꽃받침으로 싸여 있다가 밖으로 노출되며 여성의 노리개인 부로치처럼 익어 몹시 아름답다** 효능 : 풍습을 제거하므로 관절염, 사지마비 및 반신불수에 달여서 복용하고 습진, 피부가려움증에 달인 물로 환부를 세척한다. 고혈압에 혈압강하 작용을 보이는데, 꽃이나 별과 같은 것이 헛보이는 증상이 있기 전에 더 효과적이다.

# 15.산수유



층층나무과(層層—科 Corn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키는 7m 정도 자라며 수피(樹皮)가 비늘조각처럼 벗겨진다. 잎이 마주나는데 잎의 앞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연녹색 또는 흰색을 띤다. 잎가장자리는 밋밋하며, 잎 뒤의 잎맥이 서로 만나는 곳에 털이 뽁뽁이 나 있다. 노란색의 꽃은 잎이 나오기 전인 3~4월에 가지 끝에 산형(傘形)(꽃대의 끝에서 많은 꽃이 방사형으로 나와서 끝마디에 꽃이 하나씩 붙는다.)꽃차례로 20~30송이씩 무리져 핀다. 꽃받침잎, 꽃잎, 수술은 4개이며,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10월에 타원형의 장과(漿果)(과육부분에 수분이 많고 연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열매)로 붉게 익는다. **꽃은 잎이 나오기 전에 피며, 가을에 잎과 열매가 붉게 물들기 때문에 정원이나 길가에 흔히 심는다.** 가을에 **열매에서 씨를 빼내고 햇볕에 말린 것을 산수유**라고 하여 한방에서 강장제·수렴제·해열제로 쓴다.

산수유의 가장 큰 약리작용으로는 허약한 콩팥의 생리기능 강화와 정력증강 효과가 꼽힌다 산수유를 장기간 먹을경우 몸이 가벼워질뿐만 아니라 과도한 정력소모로 인한 요통 무기력증으로 조로현상 이명현상 원기부족등에도 유익하다 원기를 올려주고 신장기능을 강화해 정기를 돋워주기 때문이다 이런 효능은 남성의 조류현상이다 발기부전 몽정이나 지나친 수음행위등으로 정신이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도 적용 된다 남성의 정수를 풍부히 하여 정력을 유지하는데 효능이 탁월하고 성인 남녀의 허리와 무릎등의 통증 및 시린데 효능이 높고 여성의 월경과다 조절등에 좋다 - 동의보감

신맛은 근육의 수축력을 높여주고 방광의 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어린이들의 야뇨증을 다스리며 노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요실금증상에도 효능이 있다**

# 16. 피나무



피나무과(一科 Tiliaceae)에 속하는 낙엽 활엽교목

한국의 중부와 북부의 해발 100~1,400m 정도 되는 계곡, 산기슭 및 산중턱에 자생한다. 키는 20~25m, 지름은 1m 정도로 곧추자라며 수피(樹皮)는 잿빛이고 1년 자란 가지는 노란색을 띠는 갈색이다. 어린 가지에 짧은 털이 조금 있거나 없다. 넓은 난형의 잎은 어긋나는데 끝이 매우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으며, 잎의 기부는 심장 모양이고 잎자루는 길이가 1.5~6cm이다. 잎의 윗면은 녹색이고 털이 없지만 뒷면은 연녹색으로 맥에 갈색 털이 있다. 꽃은 6~7월에 흰색 또는 옅은 노란색으로 3~20개가 잎겨드랑이에서 나와 산방(繖房)(꽃줄기의 아래쪽에 달리는 꽃들은 긴 꽃자루를 지니고 위쪽에 달리는 꽃들은 이보다 짧다) 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꽃자루는 길이가 1cm 정도로 털이 없고 포(苞)(비늘 모양의 녹색 잎)의 길이는 약 5cm이다. 열매는 견과(堅果)(과피가 경화되어 단단한 겉껍질처럼 되어 있는 열매)이다. 목재는 **가구재·조각재·바둑판·상 등의 재료**로 사용하고 **껍질은 땀줄**을 만드는 데 쓴다. 가로수나 공원수로 적당하며 좋은 밀원식물이다. 열매는 이뇨제·진경제로 사용하며 염주를 만들기도 한다.

피나무의 피는 껍질 皮를 뜻하는 말이다.

**껍질의 섬유질은 삼베보다도 질기고 물 속에서도 잘 썩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옛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노끈, 삿자리, 그물, 자루, 망태기, 미투리 등을 만드는 데 썼고 기와 대신 지붕을 이는 데 쓰기도 했다.** 피나무 꽃은 발한 작용이 뛰어나 감기, 몸살 등에 땀을 내는 약으로 쓰며 **신경쇠약, 불면증**에도 쓴다. 또한 꽃에는 향기가 나는 정유성분과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기침을 삭이고 열을 내리며 통증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 **류머티스성 관절염, 위암, 헛배부르는데, 위염, 위궤양에도 좋다.**

꽃, 잎, 껍질에는 정유와 후라보노이드 배당체, 사포닌, 탄닌, 망간이 들어 있는데 특히 껍질에는 쿠마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골수염에 특히 좋다. **골수염에는 피나무 엑기스를 내어 복용한다.**



# 17.산딸나무



층층나무과(層層木科 Corn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키는 10m 정도 자라고 가지들이 층을 이루며 달린다. 잎은 마주나고 4~5쌍의 잎맥이 양쪽으로 나오며, 잎 뒷면에는 털이 밀생한다. 잎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무딘 톱니들이 조금 있다. 꽃은 6월 무렵 가지 끝에 무리져 피는데 둥그렇게 만들어진 **꽃차례에 4장의 꽃잎처럼 생긴 흰색 포(苞)가 꽃차례 바로 밑에 십자(十字) 형태로 달려 꽃차례 전체가 마치 한 송이 꽃처럼 보인다.** 하나하나의 꽃은 4장의 꽃잎과 4개의 수술, 1개의 암술로 이루어져 있고 열매는 10월에 붉게 익는다. 꽃받기[花托]가 씨를 감싸는 과육으로 자라는데, 맛이 감미로워 날것으로 먹을 수 있다. 산기슭이나 산골짜기에서 흔히 자라며, 꽃과 가을에 붉게 물드는 단풍을 보기 위해 정원에 심기도 한다. 응달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지만, 반그늘 또는 양지바른 곳에서도 자란다.

산딸나무 효능 및 활용법

## 1. 외상출혈

산딸나무 이파리를 따서 이를 뺏아서 환부에 붙인다.  
산딸나무의 마른 엽화(잎과 꽃)를 곱게 갈아서 붙이면 된다.

2. 위염, 이질, 설사- 건조한 꽃과 이파리를 달여서 복용한다.  
위염이나 위궤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3. 골절 - 산딸나무의 꽃과 이파리를 사용하여 외상출혈과 같은 방식으로 붙인다. 또는 건조된 꽃과 잎을 달여서 마신다.

4. 소화불량, 가스찬 데-헛배가 부르거나 복부 팽만감에 열매를 생으로 먹는다.

산딸나무 열매를 달여서 먹는다.

5. 면역성 강화- 열매를 술에 담가서 먹는다. 열매와 씨앗을 건조시켜서, 이를 갈아서 울무차처럼 만들어 복용한다.

## 18. 자귀나무



콩과(一科 Fabaceae)에 속하는 관목.

키는 3~5m 정도 자란다. 가지는 드문드문 옆으로 길게 퍼진다. 잎은 깃털 모양의 겹잎으로 어긋나는데, 길이가 6~15m인 잔잎은 낫 같은 모양의 비대칭이며 원줄기를 향해 굽는다. 꽃은 양성으로 7월에 새 가지 끝에서 길이가 5cm 정도의 꽃대가 나와 피는데, 15~20개의 꽃들이 산형(傘形)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꽃받침은 불분명하게 5개로 갈라지며, 종(鐘) 모양의 꽃부리[花冠]는 길이가 6mm 정도이며 5개로 갈라진다. 길이가 3cm로 꽃잎보다 긴 수술이 25개 정도 달리는데 끝부분은 홍색, 밑부분은 흰색이다. 열매는 9~10월에 익으며, 길이가 12cm 정도인 납작한 모양의 꼬투리에는 5~6개의 씨가 들어 있고, 이듬해까지 그대로 달려 있다. 넓게 퍼진 가지 때문에 나무의 모양이 풍성하게 보이고 특히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술 모양으로 매우 아름다워 정원수로 많이 심는다. **잎은 낮에는 옆으로 퍼지나, 밤이나 흐린 날에는 접힌다.**

**자귀나무는 밤이면 잎을 서로 붙이고 잔다. 그래서 합환목이라 불린다.** 자귀나무는 합환목, 야합수, 유정수등으로 불리며 집안에 심으면 가정 이 화복해진다는 속설이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한 화를 가라앉히고 기분을 좋게하여 행복하게 만드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불면증, 건망증, 풍화안질, 시력감퇴, 인후통, 옹종, 타박상의 동통을 치료한다. 하루 4~12그램을 물로 달이거나 환을 짓거나 가루내어 복용한다 자귀나무껍질을 합환피라 하며 요통, 타박상, 어혈, 골절통, 근골통등을 치료하고 종기나 습진등에 좋은 효능이 있다. 껍질을 말려서 물로 달여먹거나 가루를 내어 먹어도 된다. 자귀나무꽃은 기관지염, 천식, 불면증, 임파선염, 폐렴등의 치료에 효과가 훌륭하다. **신장병에 최고인 자귀나무식혜.** 자귀나무를 약 30cm 길이로 잘라 장작처럼 6쪽정도 쪼개어 물을 많이붓고 **푹 끓인다 이 물을 가지고 식혜를 만들어 먹는다.** **소쌀밥나무** 소가 잎을 좋아하며 소에게 많은 영양분을 공급하므로 그 잎을 먹은 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잇빨이 빠지지 않는 것이 특징인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잎을 태워 고약을 만들면 골절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뼈가 부러지거나 다쳤을 때 자귀나무 잎을 태운 재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섞어 고약을 만들어 붙이면 통증도 없이 신통하게 잘 낫는다.

# 19.가침박달



장미과에 속한 낙엽 활엽 관목

가침박달(-朴達, *Exochorda serratifolia*)은 주로 한반도 중부 이북지역에 분포하는 낙엽 활엽관목으로 산록과 계곡에서 자란다. 짧은가지는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고 털이 없으며, 백색의 피목(皮目)이 흩어져 있다. 높이는 1-5m 가량이며 잎은 어긋나고 타원형 또는 도란상(倒卵狀)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윗부분에 톱니가 있다. 꽃은 양성화로 흰색이며, 4-5월에 가지 끝에 3-6개씩 피어 총상꽃차례를 이룬다. 꽃받침은 5갈래로 난형인데 꽃이 지면 떨어진다. 꽃의 지름은 4cm 정도이고, 수술은 20여 개, 암술대는 5개이다. 열매는 난형이며 골과 능선이 긴 삭과를 맺어 가을에 익는다. 가침박달나무는 부처님이 이땅에 오시는 음력 4월에 순백하고 단아한 꽃망울을 터뜨려 마치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같다.

## 20.개옷나무



개옷나무는 옷나무과의 나무이다. 학명은 *Rhus trichocarpa*이다. 한국 원산이며 일본과 중국에도 서식한다.

### 생태

산기슭이나 중턱에서 절로 자란다. 갈잎작은키나무로 키가 7 미터에 달하나, 대개 떨기나무로 보인다. 어린 가지는 붉은색이 돌고 갈색 털이 많이 난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이거나 회백색을 띠고 세로로 줄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홀수 깃꼴겹잎으로 전체적으로 털이 난다. 작은 잎은 13~17개이고 달걀 또는 긴 타원 모양이다. 대개 가장자리가 밋밋하지만 톱니 2~3개가 있는 것도 있다. 길이 4~10 센티미터, 너비 3~5 센티미터 정도이며 끝이 뾰족하다. 잎자루는 짧고 붉다. 꽃은 암수딴그루로 5~6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원추꽃차례에 피는데, 황록색이고 역시 갈색 털이 뽁뽁하게 나며 꽃받침, 꽃잎, 수술이 5개씩이다. 열매는 동글납작하며 지름 5~6 밀리미터 정도의 핵과로 10월에 황갈색으로 익는데 가지 같은 털이 많다. **잎줄기가 빨갛고, 나무 밑둥 껍질에 틈살이 세로로 되어 있고, 줄기, 잎, 꽃, 열매에 많이 나는 털로 옷나무와 구별한다.**



## 21. 옷나무



옷나무과(一科 Anacardi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키는 20m에 이르며, 잎은 어긋나는데 잔잎 9~11장이 깃털 모양의 겹잎으로 난다. 끝이 뾰족한 타원형의 잔잎은 길이가 7~20cm로 윗면에 털이 있으며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꽃은 꽃대가 잎겨드랑이에서 나와 밑으로 처지며 원추(圓錐)꽃차례로 달리는데 암술·수술이 같이 있는 양성화와 한쪽만 있는 단성화가 섞여 있는 잡성으로 6월에 피며 황록색이다. 꽃잎과 꽃받침잎은 5개씩이고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이다. 연한 노란색의 열매는 납작한 원형으로 광택이 있으며 9월에 익는다. 수액을 **옷**이라고 하는데 옷은 일본 등 극동지방의 특산이며, 열대 아시아에서도 안남칠(安南漆)이라고 하여 생산되나 그 질이 떨어진다. 민간에서는 위장병의 약재로 사용되며 머리의 염색약에도 사용한다.

옷의 효능

0.위암,난소나 자궁종양 0.냉증이 심하거나 월경불순

0.술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간의 해독작용 0.뼈에 영양분을 주어 골수염,관절염에 효능

0.심장병,결핵,신경통,간병,늑막염,간경화 0.소화불량,위염,위궤양

0.담낭결석이나 신장,방광결석

## 22.이팝나무



물푸레나무과(一科 Oleaceae)에 속하는 교목.

키는 20m에 이르며, 가지의 색은 회갈색이다. 타원형 또는 난형의 잎은 길이 3~15cm, 너비 2.5~6cm로 마주나는데, 가장자리는 밋밋하지만 어릴 때는 톱니가 있다. 잎의 뒷면 중앙맥[中肋]에 연한 갈색 털이 있다. 꽃은 길이가 1.2~2cm, 너비가 3mm로 5~6월에 새 가지에서 피며, 꽃대에는 마디가 있다. 꽃받침은 4장으로 깊게 갈라지며, 흰색의 꽃잎도 4장이다. 2개의 수술은 꽃잎의 통부분 안쪽에 붙어 있으며, 씨방은 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매는 9~10월에 검은색으로 익는다. 잎이 피침형이고 꽃잎의 너비가 1~1.5mm인 것을 긴잎이팝나무(var. *coreana*)라고 한다. 흰꽃이 나무를 덮을 때 마치 흰쌀밥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팝나무라고 한다. 남쪽지방에서는 정원수나 풍치수로 심는데 목재는 건축·가구재로 쓰고, 목부에서 염료를 추출한다. 식물 전체를 지사제·건위제로 사용하며, 꽃은 중풍치료에 쓰이기도 한다.

흰 꽃이 나무를 덮을 때 마치 흰쌀밥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팝나무라고 한다.  
남쪽지방에서는 정원수나 풍치수로 심는데 목재는 건축·가구재로 쓰고, 목부에서 염료를 추출한다.

효능: 식물 전체를 지사제·건위제로 사용하며, 꽃은 중풍치료에 쓰이며 열매는 수족마비에 사용한다

## 23. 벽오동



아욱목(一目 Malvales) 벽오동과(碧梧桐科 Sterculiaceae)에 속하는 교목.

아시아가 원산지이며 키가 12m까지 자란다. 잎은 어긋나고 너비가 30cm에 달하며 낙엽이 진다. 꽃은 작고 녹색이 감도는 흰색이며 무리지어 핀다. 오동나무처럼 잎이 크나 **줄기의 색이 푸르기 때문에 벽오동(碧梧桐)이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벽오동나무를 그냥 오동나무 또는 오(梧)로, 오동나무는 동(桐)이라고 불렀다. **열매는 아주 특이하게 뿔처럼 익기 전에 5조각으로 갈라진다. 갈라진 각 조각들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처럼 생겼는데, 이 조각의 가장자리에 몇 개씩의 씨가 달려 있다.** 씨는 완두콩처럼 생겼는데, 오동자(梧桐子)라고 부르며 볶아서 커피 대신으로 쓰기도 하며 구워 먹기도 하는데, 폐·간·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줄기에서 뽑아내는 인피섬유는 물기에 잘 견디기 때문에 조포를 짜거나 밧줄을 만드는 데 쓴다. 꽃을 잘 말려 가루로 만들어 화상 입은 곳에 바르면 잘 낫는다고 한다.

**벽오동나무는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신성하게 여겨 온 나무이다 우리 겨레가 상서롭게 여기는 봉황새는 벽오동나무에만 동지를 틀며 먹이는 대나무 열매만을 먹는다고 한다. 벽오동나무에 봉황이 깃들어서 청아한 소리로 울면 온 천하가 태평해진다** 하여 사람들은 벽오동나무를 즐겨 심었다.

줄기의 곧고 푸른 모습과 시원스럽게 넓은 잎 같은 것이 선비의 절개를 상징한다 하여 서당이나 정자 근처에 즐겨 심었다.

녹색의 껍질을 벗기면 끈적끈적한 수액이 나온다. 이 수액은 접착력이 강하여 풀을 만들면 좋다. 벽오동나무 껍질을 찬물에 담가 두면 진이 끈적끈적하게 나와 엉기는데 이 진을 먹으면 위허약하여 생긴 요통에 특효가 있다. 또 남성들의 양기 부족에도 깜짝 놀랄 만큼 효과가 있다. 벽오동나무 껍질을 한여름이나 가을철에 벗겨 찬물에 담가 두었다가 나오는 진을 그릇에 받아 두었다가 한번에 50그램씩 하루 2~3번 마시면 관절염, 디스크병, 요통에 효과가 탁월하다.

## 24. 느티나무



느릅나무과(一科 Ulmaceae)에 속하는 낙엽 활엽교목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라는데 흔히 부락 어귀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정자나무이기도 하다. 가지가 사방으로 비스듬히 뻗어 나무 모양이 거꾸로 된 3각형처럼 보이며, 흔히 굵은 가지가 줄기의 밑부분에서부터 갈라지고 키가 약 30m까지 자란다. 오래된 나무의 수피(樹皮)는 진한 회색으로 비늘처럼 떨어지며 피목(皮目)이 옆으로 길게 만들어진다. 잎은 어긋나고 잎맥을 경계로 양쪽이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꽃은 5월에 피는데, 그해에 나온 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암꽃과 수꽃이 따로 따로 핀다. 수꽃은 새 가지의 아래쪽에 피며 암꽃은 위쪽에 핀다. 열매는 10월에 편평하고 둥글게 익으며 지름은 5mm 정도이다. 재목의 결은 약간 거칠지만 재질이 강하고 질겨서 뒤틀리지 않고 무거우며 무늬와 광택이 아름답다. 또한 잘 썩지 않으며 물에 잘 견디어 농기구의 자루나 가구를 만들거나 건축재로 쓰인다. 이른봄에 어린잎을 채취하여 떡에 섞어 찌서 먹기도 한다. 억센 줄기는 강인한 의지를, 고루 퍼진 가지는 조화된 질서를, 단정한 잎들은 예의를 나타내며 옛날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마을나무로 널리 심어진 나무 중 하나이다. 느티나무 세 그루를 중문 안에 심으면 세세부귀를 누린다. 신방(申方) 서남간에 심으면 도적을 막는다.”고 했다. 봄에 일제히 싹을 틔우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못하면 흉년임을 미리 알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위쪽에서 먼저 싹이 트면 풍년이 들고 밑쪽에서 싹이 트면 흉년이 든다고 점쳤다. 지방에 따라서는 느티나무에 치성을 드리면 사내 아기를 얻는다는 전설이 많아 아낙네들의 소원목이 되기도 했다. 밤에 나무에서 광채가 나면 마을에 행운이 온다. 밤에 나무에서 우는 소리가 나면 동리에 불행이 온다고 믿어 두려워하기도 했다. 옛 선비들은 이 나무 밑에서 더위를 씻었을 것이고 나무의 신에게 장원급제를 기원했을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 나무에 기도를 올리면 목신이 합격의 영험을 내린다고 믿게 되었다. 그 때문에 지금도 가끔씩 입시생을 앞둔 어머니가 이 나무를 찾아가 합격을 기원하는 치성을 드린다.



## 25. 들메나무



- 물푸레나무과(一科 Ole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주로 산의 습지에 자란다. 키는 30m까지 자라며 어린 가지는 초록빛이 도는 갈색이다. **앞은 마주나고 날개깃처럼 갈라진 9~11장의 잔잎**으로 이루어졌는데 잔잎은 긴 타원형으로 잎끝이 때때로 꼬리처럼 길어지기도 한다. 잎 앞면은 진한 초록색이며 털이 없으나, 잎뒷면은 연한 초록색이고 맥(脈) 위에 털이 있으며 특히 잎 밑쪽에 갈색 털이 많다. 꽃은 5월에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총상(總狀)(중심축에 꽃대가 있고, 무리져 피는 하나하나의 꽃이 짧은 꽃자루에 달리는 형)꽃차례를 이루어 피는데, 꽃차례는 지난해에 만들어진 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온다. 꽃잎과 꽃받침잎이 없이 수꽃은 2갈래로 나누어진 수술로만, 암꽃은 2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로만 되어 있다. 열매는 날개가 달린 시과(翅果)(열매의 껍질이 얇은 막 모양으로 돌출하여 날개를 이루며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 흩어지는 열매)로 9~10월에 익는데, 열매끝이 조금 움푹 패어 있다. 목재는 건축재·기구재·선박재 등으로 쓰인다.→ [물푸레나무](#)

**들메나무의 봄철 새순을 들미순이라 하여 지리산을 끼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고급나물로 친다. 한때 전량 일본으로 수출 하느라 맛을 보기도 힘든 나물이었다. 뿌리껍질을 수곡유피라 하여 약용 하는데 해열, 지혈, 이뇨(利尿), 진통의 효능이 있다. 풍습(風濕), 간질, 안질 등을 치료한다.**

## 26.가시오갈피



가시오갈피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가시오갈피나무라고도 부른다.

한반도와 일본·중국의 깊은 산에서 서식한다.

오갈피나무, 섬오갈피나무와 더불어 뿌리와 껍질이 한약재로 쓰인다.

대한민국에서는 환경부에 의해 보호 야생식물로 지정하여 채취를 금하고 있다. 대한민국 내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시오갈피 관련 제품은 북한산 가시오갈피를 쓴다고 주장한다. “가시오갈피는 **성인병과 현대병의 특효제로 각광**받는 ‘제2의 인삼’입니다.” **항암효과, 노화방지, 학습력 증진, 정력증강** 등 갖가지 뛰어난 효과로 ‘제2의 고려인삼’으로 불리는 토종 약초가 있다. 백두산 등에서 자생하는 가시오갈피가 그것. 러시아에선 보호수로 지정돼 해외 반출이 금지될 만큼 뛰어난 효능이 입증됐다. 사실 가시오갈피의 원산지는 우리 나라로 거의 멸종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대량 재배에 성공했다. 곧 토종가시오갈피를 임상에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만성피로증후군 및 학습능력 강화를 전문으로 하는 양·한방 협진 병원이 개업했다. 20년 전 러시아에서 우리로서는 다소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토종 오갈피 중 특히 가시오갈피의 뿌리가 그 효능 면에서 어느 약재보다도 탁월한 약용식물이라는 것. 당시 전 세계 의학계를 들끓게 한 가시오갈피는 원산지인 우리 나라에서는 멸종되고 인정받지 못한 채 해외에서 먼저 붐을 일으켰다. 그런데 다행히 94년 한국가시오갈피재배협회가 설립되고 국내 의료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시오갈피의 대량 재배가 성공을 이루고 임상 활용도 적극성을 띠게 됐다.

## 27. 산사나무



장미과(薔薇科 Ros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꽃말 유일한 사랑

키는 6m 정도 자라고 가지에 뾰족한 가시가 있다. 잎은 어긋나고 잎가장자리가 깊게 갈라져 깃털 같고 턱잎이 있다. 흰색의 꽃은 5월 무렵 가지 끝의 산방(繖房)(꽃줄기의 아래쪽에 달리는 꽃들은 긴 꽃자루를 지니고 위쪽에 달리는 꽃들은 이보다 짧다)꽃차례로 무리져 핀다. 꽃은 5장의 꽃받침잎과 꽃잎으로 되어 있으며, 수술과 암술의 수가 많다. 아가워라고도 부르는 열매는 공처럼 생긴 핵과(核果)(단단한 핵으로 쌓여 있는 열매)로 10월에 붉게 익는다. 가을에 열매로 화채를 만들어 먹거나 날것으로 먹으며, 술을 빚어 마시기도 한다. 햇볕에 말린 열매를 산사자(山査子)라고 하여 한방에서 치습제·평사제로 사용하며, **고기를 먹은 후에 소화제로 먹기도 한다.** 가지가 많이 달리고 흰색 꽃과 붉은색 열매가 달려 정원이 나 공원에 많이 심는다. 양지바른 기름진 토양에서 잘 자라며 내한성(耐寒性)은 있으나 옮겨 심으면 잘 자라지 않으므로 옮겨 심을 때 유의해야 한다. 흔히 정원에 심고 있는 미국산사나무(*C. scabrida*)는 분홍색 꽃이 핀다.

효능 및 특성

주요 효능은 소화 불량, 허약 체질, 피로 회복, 식욕 부진, 설사 등이다.

산사 자술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 시켜 소화를 돕고, 특히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킨다. 혈관 확장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고혈압에 유효하며, 심장 기능의 쇠약에도 효과적이다. 혈관을 확장시켜 어혈을 제거하므로 생리통이나 산후의 오료에 사용한다. 찬 음식을 너무 먹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켰을 때도 효과가 있다.

## 28.닥나무



뽕나무과(一科 Moraceae)에 속하는 낙엽관목

키는 3m 정도 자란다. 잎은 어긋나고 흔히 2~3갈래로 나누어지며 가장자리에는 잔톱니와 가시가 있고, 잎 양쪽에 가는 가시가 달린다. 꽃은 잎이 나올 때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 따로따로 무리 지어 핀다. **수꽃은 새로 나온 가지의 아래쪽 잎겨드랑이에서 피며 암꽃은 위쪽 잎겨드랑이에서 핀다.** 열매는 둥그렇고 6월에 붉은색으로 익으며 겉에는 아주 작은 가시들이 달려 있다. 닥나무의 열매를 저실(楮實)이라 하는데 이것을 한방에서는 양기부족·수종(水腫)의 치료에 쓰고 있다. 뿌리를 잘게 썰어 밥 먹기 전에 달여 먹으면 소갈(消渴)을 치료할 수 있다. 또한 나무껍질 속의 섬유를 뽑아내 **창호지**를 만드는데 이 창호지를 얻기 위해 닥나무를 심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저화(楮貨)라는 돈**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한국 전지역에 분포하며, 양지바른 산기슭이나 밭둑에서 잘 자란다.

**얼굴을 밝게 한다 ( 혈색을 좋게 한다 )**

**눈을 맑게 해준다.**

**얼굴이 부은데 효과가 좋다** : 흔히들 자주 얼굴이 붓고는 하는데, 얼굴이 부었을때 닥나무를 드시면 효과가 좋다.

**출혈에 효과가 있다** : 특히 자궁 출혈에 효과적인데, 사용 하면 피가 금새 멈춘다고 한다.

**이뇨작용을 도와준다** : 소변을 잘 못 보는 사람이 닥나무를 드시면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한다.



## 29.까마귀밥여름나무



해열, 해독, 감기, 옷독을 풀어주는 칠해목.

- 까마귀밥여름나무(*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는 범의귀과 까치밥나무속의 갈잎떨기나무이다.
- 높이는 1~1.5미터까지 자라며 산기슭이나 산골짜기에서 자란다.
- 나무껍질은 자갈색이거나 회갈색이며 가지에 가시가 없다.
- 꽃은 술잔모양이며 4~5월에 피고 열매는 10월에 둥글 게 붉은색으로 익는데, 약간 쓴맛이 난다.
- 잎은 어긋나고 보통 크게 세갈래로 갈라지면서 잎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 효능

- 부인허열핍력, 월경불순, 통경, 청열, 생진지갈, 생리통, 해열, 갈증제거, 진액의 생성촉진, 해독, 감기를 다스리며

**옷독을 안전하게 깨끗이 치료**한다.

- 뿌리에 부인허열, 월경불순, 통경의 효능이 있고, 열매는 청열, 생진지갈의 효능이 있다.
- 뿌리는 부인의 허열을 내리고 생리불순, 생리통 등에 유효하다.
- 열매는 열을 내리고 갈증을 제거시키며 진액의 생성을 촉진시킨다.  
열매에는 citric acid, malic acid 등의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다.

### 칠해목으로 옷독을 치료하는 방법

- 1, 칠해목 잎과 줄기 200그램을 생으로 잘게 썰어 따뜻한 물 4리터에 2시간 쪼들 담가두었다가 천천히 불을 때면서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인다. 이렇게 달이면 진한 맥주 빛깔이 나는데 이것을 천으로 걸러서 한번에 100밀리리터씩 하루 3번 마신다. 증상이 가벼운 사람은 2~3일, 심한 사람은 3~7일 동안 복용한다.
- 2, 칠해목 달인 물을 복용하면 첫날부터 염증이나 화끈화끈하고 가려운 증상, 부종 등이 없어지고 살갗이 꾸덕꾸덕하게 마르면서 깨끗하게 낫는다. 부작용과 독성이 없으며 100퍼센트 완치된다. 다른치료법 보다 효과가 두 배 이상 빠르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법이다.

## 30. 설구화



- 학명 *V. plicatum*
- 생물학적 분류 피자식물문 >쌍떡잎식물강 >꼭두서니목 >인동과

♣ 설구화(雪毬花)는 꽃 모양으로 보아서는 불두화와 똑같이 생겼다. 설구화라는 이름은 눈송이를 둥글게 뭉친것과 비슷하게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한 때는 부처님 머리처럼 곱슬곱슬하게 생겼다하여 이 꽃을 불두화라 부르기도 하였으나 요즘은 백당나무를 개량 육종한 불두화와 구분하고 있다. 설구화는 5월8일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피고, 불두화는 음력 4월초파일을 기준으로 피며, 설구화는 1m이상 키가 큰 나무로 자라며, 불두화는 1m이하의 키가 작게 자라는 등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이 용이하다. 그러나 2가지 모두 무성화(無性花)이다. 설구화의 잎은 마주나고 넓은 난형 내지는 넓은 도란형으로 길이는 5~8cm이고 끝은 갑자기 좁아져서 뾰족하다. 기부는 쐐기형 또는 원형으로 거치가 있다. 잎표면은 진한 암록색으로 측맥은 10~15쌍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뒷면은 연녹색이 난다. 꽃은 화관은 깊게 갈라져 있으며 수술이 없으므로 과실이나 씨앗은 달리지 않는다. 화서의 직경은 7~10cm이고 무성화이므로 결실치 못하며, 5월에 둥글게 피는 황록색 꽃은 만개에 이르면 순백색으로 변하여 마치 뭉게구름 같은 감을 주어 주택 정원이나 공원에 심어서 즐길 만한 관상수이다. ♣ 불두화(佛頭花) 수국백당(불두화)는 원예종으로 육성된 백당나무의 개량종이다. 잎은 마주나고 원형바탕에 끝이 삼지창 비슷하게 셋으로 갈라진다. 꽃은 전부 무성화로서 새로 자란 가지 끝에 피며 꽃잎은 5개이고, 화서는 원추화서로서 전체가 공처럼 둥글다. 꽃 속에 꿀샘은 아예 잉태도 하지 않아 향기를 내 뿜어야 할 이유도 없다보니 벌과 나비가 아예 외면해버리는 꽃, 생명이 없는 조화(造花)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서글픈 꽃이다. 즉, 백당나무에서 생식기능을 없애버린 꽃나무가 바로 불두화이다. 모든 나무의 특징은 백당나무와 같다. 다만 꽃에서 암술과 수술이 없어지고 꽃잎만 겹겹이 자라게 한 원예품종이다. 즉, 백당나무의 무성화(無性花)가 바로 불두화이다. 초파일을 전후하여 절간의 대웅전 앞뜰 같은데서 새하얀 꽃이 뭉게구름처럼 꽃나무, 불두화이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수꽃만 달리게 육종한 것이 바로 불두화이다. 절에서 많이 심는다.

# 31.히어리



쌍떡잎식물 장미목 조록나무과의 낙엽관목 히어리의 잎모양이 개암나무와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송광납판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높이 1~2m이고 작은가지는 황갈색 또는 암갈색이며 피목(皮目)이 밀생한다. [겨울눈](#)은 2개의 눈비늘로 싸여 있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의 원형이며 밑은 [심장형](#)이다. 잎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으며 양면에 털이 없다. 꽃은 4월에 피고 연한 황록색이며 8~12개의 꽃이 [총상꽃차례](#)로 달린다. 꽃이삭은 길이 3~4cm이지만 꽃이 핀 다음 7~8cm로 자란다. 밑에 달린 포는 달걀 모양으로 막질(膜質:얇은 종이처럼 반투명한 것)이고 양면에 긴 털이 있으며, 그 윗부분에서 긴 털로 덮인 잎이 나온다. 꽃에 달린 포는 안쪽과 가장자리에 털이 밀생한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고 털이 없으며 꽃잎은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다. 수술은 5개, [암술대](#)는 2개이다. 열매는 삭과(殼果)로 9월에 결실하며 2개로 갈라지고 종자는 검다. 잎은 가을에 황색으로 된다. 관상용·떨감으로 이용한다. 한국 특산종으로 [지리산](#) 지역에서 자란다.

효능:뿌리껍질은 오한발열, 구역,번란혼미 등의 약으로 쓰인다.

4월이 되면 지그재그 모양으로 뻗어나간 가지에서 작은 꽃송이들이 포도송이처럼 모여 달리는 독특한 꽃차례를 이룬다. 개암나무 잎을 닮은 히어리의 동그란 잎은 잎맥이 아주 질서 있게 나있어 그 모양이 아름답다. 9월에 익어가는, 외계인 얼굴처럼 생긴 열매 또한 아주 재미있게 생겼다. 갈색으로 익어 벌어지면 작고 까만 종자가 나오는데 가을에 이 종자 털어보는 것도 결실의 즐거움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지리산과 전남 백운산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 경기도와 강원도가 이어지는 백운산에서도 군락이 발견되어 우리나라에서의 히어리 북한계선이 새로 설정되었다. 이것으로 추위에도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조경수로써 더 유리하게 되었다. 이른 봄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노란 꽃과 연녹색 질감이 싱그러운 잎, 외계인 열매모양, 그리고 꽃이 가지마다 풍성하게 피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 히어리를 떠올리면 행복해진다

## 32.매자나무



매자나무과(一科 Berberidaceae)에 속하는 낙엽관목.

가지에 흠이 패어 있으며 가시가 나 있다. 잎은 조금 두껍고 난형이며 모여나거나 어긋나는데, 잎 가장자리에는 뾰족한 톱니들이 고르지 않게 나 있다. 노란색의 꽃은 5월에 총상(總狀)(중심축에 꽃대가 있고 무리져 피는 하나하나의 꽃이 짧은 꽃자루에 달리는 형)꽃차례로 핀다. 열매는 둥근 장과(漿果)(과육부분에 수분이 많고 연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열매)로 9월에 붉게 익으며 이때 잎도 함께 붉은색으로 물든다. 매자나무를 비롯한 매자나무속(一屬 *Berberis*) 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그늘에서 말린 것을 소벽(小蘗)이라고 하는데, 한방에서 해열제·해독제로 쓰고 있으며, 눈병에 걸렸을 때 소벽을 삶은 물로 씻으면 좋다고 한다. 잎은 독성이 있어 그냥 먹으면 위험하다. 한국에서만 자라는 특산종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북쪽 지방에서 볼 수 있으며, 산골짜기의 양지바른 곳이나 반그늘진 곳에서 자라고 추위에도 잘 견딘다.



## 33.이나무



이나무(*Idesia polycarpa*)는 한국·중국·타이완 등지에 분포하는 낙엽 활엽교목으로 의나무·위나무라고도 한다. 산지에서 자라며 높이는 15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회백색이 굵은 가지가 사방으로 퍼진다. 잎은 어긋나며 길이 10-25cm, 너비 8-20cm의 난상 심장형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4-5월에 연한 황록색으로 피며 암수딴그루이며 가지 끝이나 잎겨드랑이에서 원추꽃차례로 달리는데 일부 총상꽃차례로 달리기도 한다. 수꽃은 암꽃보다 크며 많은 수술이 있고 꽃밥이 황색이다. 암꽃은 5개의 암술대가 있으며 꽃받침이 연한 자주색이고 털이 있다. 열매는 지름 1cm 내외의 구형이며 10개 정도의 씨가 들어 있고 11월경에 빨갱게 익는다.

이나무 효능

- 0. 기미, 주근깨, 주름살 제거 : 봄에 꽃을 따서 2-3개월 증류주에 담가 두었다가 그 술을 얼굴에 바르면 10-30일 사이에 기미가 없어지고 피부가 정상으로 된다.
- 0. 타박상, 통증, 뼈마디가 쭈시고 아픈데, 관절염, 발목, 손목 뻘데, 디스크, 삔뿌려진데는 이나무 잘게 썰어 말린 것 30-60그램에 물 1리터를 붓고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그 물을 하루 세 번에 나누어 마신다. 줄기를 짓쥘어 아픈 부위에 두껍게 붙이면 통증이 없어지면서 잘 낫는다.
- 0. 여름에 빨갱게 익은 열매를 35도의 술에 3개월 이상 담가 두었다가 조금씩 마시면 소변을 잘 나게 하고 신경통과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효험이 있으며 타박상이나 골절로 인한 통증이 빨리 없어진다.

